

10·25 재보선 후보 인물·정책 검증

(3) 신안군수

‘해양관광 개발·클린행정’ 한목소리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고길호 전 군수가 지난 6월 30일 취임도 하기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서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고향으로 민주당의 심장부이 지난 5·31 선거에서는 무소속의 고 전 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14개 섬으로만 구성돼 유권자 표집잡기가 녹록치 않다. 뒷산과 아랫섬들간 주민 성향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군수 후보로는 10·25 재보선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6명이 표밭같이 나왔다. 4명의 무소속 후보를 가운데는 내심 차기 총선을 노린 행보도 엿보인다.

후보들은 저마다 도서 특성을 살린 해양관광 개발과 클린 행정,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부르짖고 있으나 세부 실행계획과 예산 확보면에서 구체성은 떨어진다.

신선 2기 최공민 전 군수의 아들로 한국관광공사 서남지사장을 지낸 민주당 최영수 후보는 문화관광 사업의 체계적 육성과 명품 농수축산물 개발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가적 마인드와 마케팅 능력을 갖춘 ‘경제군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림부장관 정책보좌관과 국정홍

Table with 6 columns: Candidate Name, Party, Position, Birth Year, Education, Major Policy. Candidates include 김영식(46), 최영수(46), 강성만(45), 박우량(51), 이춘식(61), 최신웅(59).

최영수 “명품 농·수축산물 개발” 강성만 “千 섬 프로젝트” 역설
박우량 “도서공원화 사업 박차” 이춘식 “세계적 해양관광도시”
최신웅 “세월 발굴, 郡 채무 감축” 김영식 “압해 대교 내년 완공”

보처 공보지원담당관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의 무소속 강성만 후보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신안에 새 희망과 비전을 일구겠다”며 신안 농어촌개발공사 설립 등 ‘천 섬 프로젝트’를 간담삼아 표심을 파고 들고 있다.

한 인맥’을 무기로 내세웠다. 연도고 건설과 친환경 농·수산업 전환, 도서공원화 사업 등이 핵심 공약이다. 이춘식 전 광주시 건설관리본부장은 “38년의 건설행정 경험과 청정 신안 이미지에 맞는 깨끗한 행정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한 군 채무 감축, 도서관 요금지원제 존속, 가두리양식장 존설, 쌀농업·밭작물재 증액을 내걸었다. 전남도당 조직부장 출신의 한나라당 김영식 후보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당과 함께 군민들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고자 한다”며 지지도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 하남부시장을 지낸 무소속 박우량 후보는 행정전문가로서 30여 년간의 지방·중앙행정 경험과 탄탄

한 세원 발굴과 경사 경비 절감을 통

한 세원 발굴과 경사 경비 절감을 통

북한도 늙어간다!

65세이상 8%..이미 고령화 사회 진입

북한도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가정보원, 통계청, 유엔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현재 북한 인구는 2천270만9천명으로 남한 인구 4천808만2천명의 47% 수준으로 파악됐다.

시·도의원 ‘인턴 보좌관제’ 도입되나

전국 의장협’ 중점 논의키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시·도의회 의원 인턴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키로 해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를 19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1박 2일의 일정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한의학 전문대학원 전남대에 설립해야”

광주시의회가 18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전남대학교에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광주와 전남은 풍부하고 다양한 한방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한방협력국가인 중국·일본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등 국내 한방산업의 국제화를 견인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또 지역거점대학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전국최고 수준의 연구량과 2개의 부속종합병원을 갖추고 양·한방 협동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협진을 통한 양·한방의 동반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기숙 전남대 대홍보수석의 증조부가 조선 말기 탐관오리이자 가렴주구의 대명사로 통학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고부 군수 조병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25 재보선 현장

박근혜 “호남 민심 많이 따뜻해져”

○10·25 재·보궐선거 지원유세차 18일 호남을 방문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민주당과의 제휴 가능성에 대해 “연대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해남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화 및 산업화 세력은 우리나라 발전을 이끈 양대 기둥이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선진화를 하는 데 두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합동토론회, 맥빠진 분위기속 진행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우량 열린우리당 후보 선대본부는 1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체일병 후보가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은 허위사실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측은 “채 후보는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입당원서를 제출했고 탈당원서도 본인이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안서도 금품제공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10·25 신안군수 재선거와 관련 물품 교환권을 구입해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모 정당 운영위원장 A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선거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4일 A씨 집에서 모임을 갖고 마을 책임자 등 자당에 우호적인 유권자 54명을 선정한 3만원 상당의 물품교환권 60장(총 180만원)을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dvertisement for Caleo flooring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room and text: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and '칼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Advertisement for Modern Vocational College: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with a table of courses and fees.

Advertisement for Hanbit Civil Servant Academy: '공무원 아권반 첫진도' and '공무원 이론반 첫진도 개강 11월 1일'.

Advertisement for Chonnamgosi: '공무원, 농업직, 경찰직, 소방직' and '전남고시학원' with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Modern Vocational College: '현대직업전문학교' with address and phone number.

Advertisement for Hanbit Civil Servant Academy: '한빛공무원학원' with address and phone number.